**<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아이들 원장스님 인사멘트>**

오월은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이
우리에게 오신 달입니다.
더불어 주변을 돌아보고
우리도 부처님처럼 자비와 보은을 실천하게 되는 달입니다.

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에서는
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신 것처럼
소외된 어린이들이
부처님의 품안에서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
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에는
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와 질병, 열악한 환경으로
가난의 대물림 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.

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의 마음속에
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
꽃 피울 수 있도록
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.

늘 깨어서 자비실천에 앞장서시는 불자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